

박경주. 2019.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인권운동” 『인권연구』 2(1): 71-108.  
Park, Kyung Joo. 2019.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as Social Labor”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1): 71-108.

[일반논문]

##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인권운동 : 난민지원활동가의 노동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박 경 주\*

한글초록

노동은 놀라운 가능성과 위험성을 지닌 이중의 프로젝트이다. 즉 노동은 개인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쁨, 자부심, 인정, 사회적 연대감 등의 원천이면서, 업무상 사고에서 일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안전의 문제를 통해 개인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노동에 내재된 이와 같은 ‘이중성’은 사회적 노동자인 난민지원활동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난민지원활동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노동의 노동과정 특성과 사회적 노동자인 활동가들이 마주할 수 있는 노동위험 사이의 상관관계와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노동자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위기와 지속불가능성은 시민의 삶과 그들의 터인 사회의 위기와 지속불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계급의 위기는 처우문제를 중심에 동반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건강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예방·조치함으로써 그들의 ‘좋은 노동’에 기반한 시민사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난민, 난민지원활동, 사회적 노동, 소진, 일중독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목 차

I. 서론

1. 삶의 발전이자 위험으로서의 노동
2. 사회적 노동자의 노동건강 분석의 중요성
3. 활동가들과의 만남, 인터뷰, 전개방식, 한계에 대하여
4. 작업개념 및 가설

II. 본론

1.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들
2.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 특성
3. 활동가들의 노동위험: 소진과 일중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III. 결론

I. 서론

1. 삶의 발전이자 위험으로서의 노동

요하힘 바우어는 노동을 ‘놀라운 가능성’과 ‘위험성’을 지닌 이중의 프로젝트라고 말한다(요하힘 바우어, 2015: 13). 그의 말처럼 노동은 개인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쁨, 자부심, 인정, 사회적 연대감 등의 원천이면서, 업무상 사고에서 일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안전의 문제를 통해 개인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노동에 내재된 이와 같은 ‘이중성’은 사회적 노동자인 난민지원활동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난민지원활동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이라 여겨지는 사회적

노동(자)의 노동과정 특성과 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노동위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본 연구가 다루는 질문은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지원활동가의 노동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노동과정의 특성은 그들의 노동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2. 사회적 노동자의 노동건강 분석의 중요성

사회적 노동자의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르포형식의 글은 최근 몇 년 사이 ① 관료화 및 세대갈등을 포함한 조직내부의 갈등, ② 처우문제, ③ (①과 ②의 종합으로서) 활동의 지속(불)가능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축적되어 온 반면 활동가의 ‘노동건강’에 특정된 작업들은 비교적 적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은 그것이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사회적 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유기동물보호활동가의 노동과정의 경험과 그에 따른 노동건강과 위험문제는 유사하면서도 다를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가(들)의 역동이 노동건강에 대해 갖는 구성적 측면을 충분히 그려내지 못했다. 이는 활동가의 노동위험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소진증후군’(Burnout Syndrome)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의 자율성에 기반 한 사회적 노동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동2)을 만들어내며 한편에선 좋은 노동(삶을 위한 노

1)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노동 동기의 필수요소로 삼고 있는 사회적 노동의 특성은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기에 어쩌면 가장 적절한 장場일지도 모르겠다.

2) 이영룡·명수민은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을 연구하며 그들의 노동이 가진 역동과 긴장을 체계화와 탈-체계화, 자율과 조직업무, 조직문화와 효율성, 결속 다지기과 관계 넓히기, 자립과 지원 사이, 지역과의 만남과 지속, 재미와 의미 등으로 나눈 바 있다(이영룡·명수민, 2014: 104-137).

동)의 미래를, 또 다른 한편에선 좋은 노동의 고전(苦戰)과 불가능성(노동을 위한 삶)의 형식들을 생성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기존의 논의들을 준거(점)삼아 ① 사회적 노동영역 내부의 개별 현장들을 다루며, ② 노동과정의 특성에 의해 등장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역동과 노동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소진을 넘어서는 일중독의 가능성과 그것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활동가들의 역동이다.

사회적 노동자란 말 그대로 사회를 (재)생산하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위기와 지속불가능성은 시민의 삶과 그들의 터인 사회의 위기와 지속불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계급의 위기는 처우문제를 중심(부)에 동반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건강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예방·조치함으로써 그들의 ‘좋은 노동’에 기반 한 시민사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노동자들의 소진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시민사회 내·외부에서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며, 재단(들), 중간지원 단체, 심리상담소 등의 지원으로 활동가들의 쉼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 3. 활동가들과의 만남, 인터뷰, 전개방식, 한계에 대하여

본 연구는 난민 관련 지원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 5명과 나눈 대화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주요 표집요소(sampling element)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당사자(큰 틀에서의 비호신

3) ‘삶을 위한 노동’과 ‘노동을 위한 삶’이란 개념의 대비는 급진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노동의 인간학과 탈노동의 인간학 양자 모두를 비판적으로 참조하면서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장훈교, 2015).

청자 전부)와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난민지원활동가이다. 난민 지원활동가란 ‘난민인권활동가’와 ‘난민 관련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활동가’ 등을 포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조작·임의적으로 설정한 정의이자 범주다<sup>4)</sup>.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난민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부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및 전략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차이와 긴장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낸 이유는 난민들이 놓인 구조와 조건이 이들의 활동에 일정 정도의 공통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들을 세분화된 범주로 나뉘었을 때 표집 군이 너무 협소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둘째, 활동가가 활동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고 회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을 상정했다. 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업계의 관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즉 난민지원활동분야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2년에서 3년 정도의 활동을 마치면 향후 “계속 일을 할지 말지가 거의 결정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 3-4년 정도의 활동경력을 가진 여러 어려움에도 활동을 지속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었다. 셋째, 3개 이상의 단체에서 활동가들을 표집하는 것이었다. 이는 구술의 다양성의 필요이면서, 다양성 속에 나타나는 공통성의 필요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개별 및 집단 형식을 병행했다. 인터뷰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활동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의 기본 구조와 작동방식(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활동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관한 것이다. 나는 다양한 감정

4) 한편, 이는 현실을 반영한 범주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의 난민인권네트워크(구 난민지원네트워크)에 소속단체들 사이에는 활동의 내용과 방법, 관점 및 지향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다.

들 중에서도 활동가들이 활동·노동에 대해 느끼는 사랑, 어려움, 고민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왜냐면 이 글의 주된 문제의식은 노동에 대한 사랑의 행방, 즉 노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만들어 낼 어떤 미지의 결과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사랑은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기쁨과 몰입, 어려움은 그것의 좌절 혹은 불가능성 그리고 고민은 이러한 사랑과 어려움 사이에서 생성되는 역동의 자리 등과 결부된다. 셋째는 위의 질문들을 좀 더 심화하여 이글의 주요 문제의식인 활동가의 소진과 일중독의 가능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① 노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준하는 성과와 보상의 가능성, ② 활동가의 삶과 노동 사이의 우위와 관계양식(전도·역전가능성) 등을 질문하였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이력

	활동가A	활동가B	활동가C	활동가D	활동가E
활동기간	4년	3년	3년	5년	4년
활동내용	난민지원 제도개선 시민교육	난민지원 제도지원	난민지원 공동체지 원	난민지원 시민조직 제도개선	난민지원, 난민관련 문화활동
단체지역	J도시	J도시	C도시	J도시	D도시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절들에서 다음과 같은 전개방식을 따를 것이다. 먼저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작업)개념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참조하여 활동가들의 노동과정을 형성하는 기층 요인을 크게 2가지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노동과정의 특성들을 분류해볼 것이다. 이들의 노동과정은 난민이 처한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특정한 지위 및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회적 노동을 임하는 활동가들의 노동윤리(태도)를 밑절미 삼아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노동과정의 특성들과 그 사이에서 등장하는 활동가들의 역동

이 어떻게 그들에 대한 노동위험, 그 중에서도 ‘새로운 노동건강문제’인 소진과 일중독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서술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노동의 개별 현장분석을 통해 활동가들의 노동위험 가능성에 ‘비상경보’를 켜고자 한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노동위험 가능성을 본격적인 척도로 측정해 객관화하여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착한-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위험문제는 오랜 기간 ‘당연시’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났고(정준호, 2014), 그에 따라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없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관한 하나의 경로 혹은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 4. 작업개념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개념은 크게 3가지로 노동사회, 좋은 노동, 사회적 노동이다. 먼저 노동사회란 우리의 삶을 포함한 전체사회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재편/구조화되는 사회적 경향을 말한다(강수돌, 2007: 247). 이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로서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발명된 ‘최신품’이자 이 시기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Gorz. A., 1994: 53-54; Gorz. A., 2011: 131-132). 고르에 따르면 인류의 삶에서 노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 즉 타율노동(임금노동), 자활노동(재생산노동), 자율활동(자기미학·발전노동)을 포함해왔다(Gorz, A, 1985: 62-63).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함께 임노동은 다른 활동·노동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임금·타율노동에 대한 삶의 의존도 역시 점차 높아졌다<sup>5)</sup>.

5) 이 과정은 ① 마르크스에게는 인클로저와 본원적 축적으로 인해 중세의 농노들이 무산대중이 된 사건이고 ② 베버에게는 개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선택적 친화성’에 따른 노동윤리가 전면화 되어가는 사건이며 ③ 페데리치에게는 마녀사냥 이후 사회적으로 인종화 된 여성들이 공유지 내의 지위

고르는 이러한 경향을 몹시 경계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① (성장주의에 기반을 둔) 임금노동의 전면화를 삶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노동·활동들의 축소<sup>6)</sup>이자 ②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에 큰 ‘걸림돌’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앙드레 고르를 비롯한 노동사회의 비판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지 워스의 다음 말은 노동사회의 제약 하에 놓인 ‘우리’의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다. “임금노동 바깥의 시간과 공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름만큼 우리는 노동 중심의 삶 구성에 익숙해져있다(Weeks, K, 2011: 36).”

더불어 노동사회의 전면화는 ‘삶과 노동의 관계 전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의 생성’을 수반한다. 바꿔 말하면 노동사회는 우리에게 ‘노동을 위한 삶’을 요구하며, 이는 노동윤리를 통해 정당화된다(Weeks, K, 2011: 46). 즉 임금노동에 우리자신을 체계·지속적으로 헌신하게 함으로써 ① 노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② 노동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도록 ③ 더 나아가 노동을 삶 자체의 목적으로서 긍정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삶은 언제나 노동보다 이차적이고 노동은 삶에 대한 위협이 되기 쉽다.

하지만 삶의 발전은 결코 노동 없인 이루어질 수 없기에, 노동은 삶에 대한 위협으로 고정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좋은 노동’의 발명이다. 김찬호는 삶을 단순한 생존, 즉 물리적인 시간과 생리적 연명을 넘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김찬호, 2009: 8). 관련하여 프리가 하우그도 “삶이란 노동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Frigga Haug, 2009). 이 글에서 사용하는 ‘좋은 노

---

와 자급의 수단을 박탈당함으로써 ‘계급 이하의 계급’이자 ‘집안의 노동자’로 종속된 사건이다.

6) 일리치는 이것을 ‘현대화된 가난’(modernized poverty)이란 개념으로 분석했다(일리치, 2014: 113-115).

동’이란 바로 이러한 차원들의 삶과 그것의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을 의미한다(장훈교, 2015; 토마스바셰크, 2013: 101).

다음으로 사회적 노동이란 이영룡·명수민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노동형태로서 ‘더 나은 사회(적인 것)’를 추구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하려는 비영리시민사회·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인권단체의 활동·노동을 총칭한다<sup>7)</sup>. 87년의 (형식적) 민주화에 이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국면에서 89년 경실련과 94년 참여연대의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단체는 2000년 기준 2,524개에서 2017년 13,464개로 증가했다<sup>8)</sup>. 이것은 시민사회의 제도화와 함께 사회적 노동영역에 준거한 노동시장의 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사회적 노동을 자신의 직업목록에 본격적으로 넣게 된 것은 ‘후기산업주의’ 곧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청년들은 (자율적인) 문화·소비주체로 호명되었고, 그와 맞물려 등장하기 시작한 개성 및 자율기반의 ‘좋아하는 일을 하라’ 등의 노동윤리를 온몸으로 체현한 처음 세대이기도 하다(최태섭, 2017). 물론 ‘그때의 청년’과 ‘지금 청년’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여럿 존재한다. 조한혜정은 이를 문화의 세대·서태지 세대에서 생존의 세대·탈-서태지 세대로의 이행이라 불렀다(이는 자본주의 동학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궤를 같이할 것이다<sup>9)</sup>). 그럼에도 개성·자율기반의 노동윤리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되고

7) 이영룡·명수민(2014)은 역사, 이론적 지평에서 사회적 노동을 맥락/개념화하고 있다.

8) e-나라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최종검색일 2019.06.0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9) 조한혜정(2011: 238)은 90년대 학번과 2000년대 학번의 학생들을 상호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의 청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스케치해 보았다. 동료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비

있다<sup>10)</sup>. 최근의 ‘퇴사담론’, ‘다운쉬프트’, ‘덕업일치’ 등과 사회적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지속적인 필요, 곧 사회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일자리의 추구는 이에 대한 예증일 수 있다(이영룡·명수민, 2014: 1-2).

이와 관련하여 개별 현상의 다양성과 차이에도 사회적 노동 영역을 아우르는 공통성/양상이 있다면 그건 아마 자율성일 것이다. 이는 노동의 동기부터 지속의 이유, 조직 내 관계양식, 업무과정에서의 통제력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과정 저변에 깔린 문화이자 작동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은 무엇보다 진정성, 즉 ‘가치와 신념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주춧돌’로 삼는다. 토마스 바세크(2013: 124-127)에 따르면 진정성은 노동자에게 ① 단순한 일과의 합일을 넘어 ② 노동이 제시하는 사회적 관점(가치와 신념) 및 실천과의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③ 더 나아가 그것은 헌신이나 의무감 등으로 전화되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은 임금·돈벌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될 수 없는, (고르에 따른) 자율 활동과 (아렌트의 구분에 따른) 행위 즈음의 의미인 것이다. 활동가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 지연(혹은 ‘불인정’<sup>11)</sup>)이나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는 모습 등은 활동가 자신의 직업/정체성과 결부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 짓는다.

---

물질 노동을 하면서 문화를 창조하고 싶어 했던 신세대 대학생들은 급격히 사라지고 급속한 시장주도의 세계화 와중에 아주 경쟁적이면서 안정지향적인 청년들이 캠퍼스 공간을 메우기 시작했다”

10) 이러한 노동윤리와 그에 따른 개성/자율 기반의 주체성이 지속되는 이유를 현재로서는 ① 소비사회의 필요이면서 ②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청(소)년들에 대한 관리/통치정책의 필요, ③ ‘좋은 노동’을 하려는 시민의 필요 정도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11) “난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삶이지”라는 식의 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사회적 노동은 노동사회 내외부에서 ‘좋은 노동’의 가능성과 원형을 품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노동에 참여한 이들이 자아실현/성장의 어려움과 업무과잉 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더 플랜B, 2016). 이는 활동가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으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노동의 ‘나쁜 노동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작업개념을 정리하며 세워보는 가설-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직업·임노동으로서의 사회적 노동은 노동사회의 구조적 경향 내부에서 등장했지만, 그것의 특성에 따라 노동사회 안에서 밖(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좋은 노동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그것은 노동사회의 형식을 담지한 채 유지·존속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노동사회의 구조적 제약 하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노동에 대한 노동사회의 외재·제약성은 사회적 노동의 ‘좋은 노동화’에 대한 불가능의 조건이 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사회적 노동의 경향(자율, 진정성 기반의 노동)이 노동사회의 구조적 경향(노동을 위한 삶, 노동과 삶 관계의 전도·역전)을 강하게 흡수할 가능성 역시 열어 놓는다. 넷째, 사회적 노동의 개별현장 내 노동과정의 특성과 이러한 가설들의 접속은 활동가들의 노동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절에선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 특성과 그것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들

#### 1) 난민과 활동가의 관계

활동가에게 답하기 가장 ‘힘든’ 질문이라면, 아마도 난민의 상황에

농인 이들이 자신에게 가닿는 의미, 가령 ‘당신에게 난민은 어떤 존재 인가요?’ 등일 것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 연구자가 지켜본 바로 활동가들에게 난민은 삶 깊숙이 찾아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혁명’이자, 그가 겪었던 상처 안에 함몰되어 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밀어내는 ‘고통’이면서도, 때론 활동가의 상처와 지침을 어루만지는 ‘치유’ 같았다. 난민과 활동가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관계의 성격은 활동가들이 난민지원활동을 이해하고 실행할 때의 ‘인식론적 토대’가 되어 노동윤리에 ‘각인’되는 듯 했다.

난민들은 보호책임국에 입국한 후 난민지위인정을 위한 조력부터 생계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난민지원단체와 활동가를 찾는다. 그들에게 활동가는 자신의 상황을 ‘곁’에서 가장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전문가이며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쩌면 유일한 사회적 자본이다. 활동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건강에 무리가 되고 추가로 고생을 더 하더라도 난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삶의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케이스 조력부터 정부 및 법무부와의 싸움,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한 각종 ‘행정잡무’ 등 활동가의 노동과정은 복합적이고도 총총(叢叢)하게 구성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좀처럼 잘 얻어지지 않고 지원해야 할 난민들과 그들을 둘러싸고·매개삼아·투사함으로써 등장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을 별이의 수단만으로, 난민들을 단지 1건의 ‘지원 대상’으로 격하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활동가 개인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들의 사방팔방을 에워싸며 노동을 재촉한다. 활동으로부터 얻는 행복, 뿌듯함, 자부심, 죄책감, 좌절(힘에 부침, 지침, 포기의 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활동가의 내면을 횡단한다. 한 난민지원활동가의 메모를 옮겨본다<sup>12)</sup>.

12) 한 활동가의 담벼락에서 지켜보던 글. 그는 현재 활동을 잠시 중단한

업무가 줄어들기는커녕 한없이 쌓여가는 곳. 지원할 수 있는 사람보다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곳. 내 일터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동안 짐작하지 못할 고통을 겪은 이들을 매일같이 만났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죄책감이 쌓였고 기쁨이 사라졌다. 무력한 내가 싫었다. 내가 해온 일들이 만족스럽기는커녕 부끄럽기만 했다.

## 2) 난민의 지위 이하의 지위, 자율·진정성 기반 노동윤리

관련하여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 특성을 형성하는 2가지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활동의 ‘대상’이 되는 난민의 상황, 즉 본국과 보호책임국 내에 혹은 국경 바깥에서 겪고 있는 “지위 이하의 지위”<sup>13)</sup> 및 그것을 둘러싼 국면들이다. 다음으로 는 사회적 노동영역의 풍토에 따른 활동가가 일을 대하는 자율성 및 진정성 기반의 노동윤리와 관련된다. 이 요인들은 상관관계(때때로 인과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작용함으로써 활동가들의 노동과정을 특정하게 구성해낸다.

다음 절에서 나는 이 요인들에서 비롯된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 특성을 각각 ① 지위 이하의 지위에 놓인 난민의 ‘결’에 선 노동과 ② 자율성 및 진정성 기반노동으로 명명하여 설명하고 ①과 ② (혹은)그 사이에서 나타난 활동가들의 역동이 어떻게 노동위험, 즉 한편에선 소진으로, 또 다른 한편에선 일중독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작하며 적어두었던 요하임 바우어의 말을 이 글의 문제의식에 맞게 질문 형으로 변환하여 상기하는 것은 다음 절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즉 상대적으로 다른 노동들에 비해 놀라

상태다. 허락을 받고 인용한다.

13) 케빈 그레이(2004)가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계급 이하의 계급”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착안하여 구상해보았다.

은 가능성의 실현경향을 품은 사회적 노동의 현장에는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사회적 노동은 어떻게 위험이 되는가?

## 2.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 특성

### 1) 난민지원활동, “지위 이하의 지위”에 놓인 난민의 ‘결’에 선 노동

조르조 아감벤은 국가주권(권력)을 숙명론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조르조 아감벤, 2008; 정정훈, 2014: 156-157). 이 점은 국가에 대한 집단저항(주체)의 가능성, 더 정확히는 ‘인권의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려는 이들에게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14</sup>). 그럼에도 그의 분석(특히, 인권의 무용·무력성)을 부정하거나, 간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힘으로서의 주권과 그것의 효과이면서 ‘거울상’인 ‘별거벗은·날 것의 생명’은 오늘 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대량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주권 앞에서 무력한 인권과 국제법에 대한 그의 비판이 날카롭고 매서운 이유다). 세계대전에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제이주의 역사와 소수민족·인종 및 ‘내부의 적’에 대한 전쟁사는 이를 입증한다.

난민지원활동의 전개는 이에 대한 (지난한) ‘반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는 세계대전 중에 대량으로 등장한 무국적자와 난민들의 생(명)이 ‘민간자선단체’에 의해 유예와 연명이 되고 있을 뿐, 이는 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한나 아렌트, 2011: 532)<sup>15</sup>). 그가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는지 수궁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난민지원활동에는 그것을 단지 연명이나 유지의 관

14) 대표적인 경우로는 Jacques Rancière(2004: 301)를 들 수 있다.

15) 더불어 난민지원활동이 국가의 의무방기 및 ‘공동화(空洞化)’를 보조/정당화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Serhat Karakayali and J Olaf Kleist, 2016: 66).

점에서만 볼 수 없는 저항과 변혁의 차원 역시 존재한다. 곧 이 활동은 국가로부터 보호의 진공상태 및 지위와 자격의 박탈과 불인정의 조건에 놓인 이들의 곁에서 삶의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며, 여기서 난민들의 삶의 증진은 국민국가 내 이들의 지위와 그에 따른 자격제한의 복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온건하게 전개되더라도 -권리를 박탈하거나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국가체제와의 ‘불화’는 불가피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sup>16)</sup>. 따라서 지원활동은 자크 랑시에르가 말한 뭉 없는 이들이 뭉을 주장하는 ‘정치’와 동일하진 않더라도 다소 유사한 구조를 갖거나 그것을 방법원리의 하나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난민지원활동은 ‘지위 이하의 지위’ 상태에 내버려진 난민의 곁에 선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곁’이란 곧 당사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도 다 느낄 수 없는(고통과 동일화될 수 없는), 당사자의 고통과 연결되면서도 단절된 ‘또 다른 고통’<sup>17)</sup>의 항구적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고통을 해석하고 그들과 함께 조력, 대의·대표하여 뭉을 요구, 탈취, 확보해(내)야 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른 난민지원활동의 세부적 노동과정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긴급한 노동

난민들의 ‘지위 이하의 지위’의 상태는 그것에 대한 활동가들 사이의 이해와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에게 “지금 내가 돕

16) 관련하여 난민문제의 해결은 국민국가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탈구축’에 대한 ‘급진적 필요’의 측면을 갖는다. 난민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써 어느 한 지역/체제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17) 엄기호는 이 ‘또 다른 고통’을 자기에게 함몰된 고통의 곁에서 (고통에 의해/에게) 응답/현상될 수 없는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는 곁의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엄기호, 2018; 엄기호·김영옥·김일란, 2018).

지 않으면...”이라는 윤리의 바탕으로 기능했다. 물론 활동가들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절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자신과 동료들에게 (습관적으로) 되뇌기도 했다. 하지만 활동가들을 둘러싼 정황은 좀처럼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은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와 길거리, 심한 경우는 본국으로 보내질 상황에 처해있다. 작년에 한 뉴질랜드의 활동가가 온몸과 맘을 다해 난민의 강제출국을 저지하는 영상이 국제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걸 보면서 여러 정서가 상기(上氣/想起)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난민지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독특한 순간이 뭐냐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전지구상에 저밖에 없다는...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없다. 나 밖에 없다라는 순간들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저밖에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있어서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sup>18)</sup>

“제가 조금만 더 하면 그분들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지는 게 (그래도) 보이니까... 근데 저도 쉬어야 하잖아요. 어느 날 밤에 한 난민분의 강제출국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곤장 강제출국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곳, 저곳에 전화를 돌리고,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머리는 하얗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까 한국의 상황을 물으셨죠? 여기에서도 알게 모르게 강제출국은 진행 중입니다.”

-활동가㉠

18) 2017. 1. 24 방영, CBS 새롭게 하소서, “난민의 하나님, 난민의 변호사”

난민들의 ‘긴급한 상황’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복잡다단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대처’는 많은 경우, 활동가들의 ‘추가노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주말에 활동가의 개인 전화로 연락이 와서,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비를 언제 낼 것인지 독촉하러 집에 왔다... 전화로 대신 못 내겠다고 이야기 해 달라... 다음 주까지 장학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메신저로 활동가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면서 장학금 신청을 부탁하는 경우, 버스비가 없는데 활동가에게 어디로 좀 데리러 와 달라 활동가가 보호자가 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

## (2) 국제적인 스케일의 지난한 노동

많은 경우 활동가들의 업무는 ‘국내적 상황’에 관한 것이지만, 전 지구적인 상황과 국면의 전환이 국내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난민지원활동은 ‘국제적인 스케일’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파리에에서의 ‘테러’와 국내의 ‘테러방지법제정’ 그리고 예멘 내전에 따른 예멘 출신 난민들의 입국과 ‘난민법 개악(改惡)’ 시도의 연루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탈-베스트팔렌적인 스케일’은 만들어내고자 하는 변화와 성과를 매우 더디고 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무력감이나 ‘소진’ 등을 경험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을 버티며 더 나아가 거스르는 정서 역시 내보인다.

“이 일이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뒤치다꺼리 같은 일들, 맨땅에 헤딩 하는 느낌으로 계속 해야 하니까 금방 지치더라구요. 왜 활동가들이 3년 이상 이

쥬에 있지 못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활동가㉑

“뭔가 제자리인 느낌이 들죠.. 언제부턴가 국제뉴스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 때려 치고 싶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또 변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동안 대체 무얼 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그만 들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일이 좋고, 여전히 이 일의 의미를 물어온 제게 답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 두더라도 제가 인정할 만큼의 것을 해내고 그만 둘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활동가㉒

### (3) 트라우마를 ‘체험’하는 노동

활동가들은 본국<sup>19)</sup>에서의 박해와 고통에 의한 트라우마 상황의 난민들을 많은 경우 ‘별다른’ (심리적) 보호장치 없이 대면하고 있었다<sup>20)</sup>. 변호사와의 만남 전에 난민들의 (가감 없는)이야기를 듣고 1차적으로 ‘케이스’를 정리하는 것(케이스 조력)을 포함해 일상적인 상담은 활동가들의 주된 업무 중 하나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오래 계신 (난민)분인데 매일 매일, 계속 전화를 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는 많이 우셨어요.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

19)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받는 동안에 겪는 일이 본국에서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거나, 그것보다 더 큰 트라우마(more traumatized)를 경험케 한다는 사례도 있었다(난민인권센터, 2017: 140).

20) 활동가의 보호와 안전 및 윤리에 대한 ‘난민지원단체’ 사이의 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사이 난민인권네트워크(구 난민지원네트워크)는 보호방안 및 활동가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고(박상희·박지현, 2016; 유상미, 2016), 특별히 A단체는 활동가들을 위한 보호매뉴얼을 만들었다.

사례의 경우에 정서적인 상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요.”

-활동가㉔

활동가들은 상담의 과정에서 난민과의 심리적 동일시와 대상화 사이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완전한 동일시, 완전한 대상화의 양 극단은 모두 위험하다. 그럼에도 이것의 균형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몇몇의 활동가들은 (트라우마의 곁에 선 이들의 트라우마인) ‘2차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활동가 개인의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진 특정한 개별 활동가들의 상황이라기보다 차라리 모든 활동가들의 상황, 즉 그들을 둘러싼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난민이 경험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업무시간 외에 상거하는 건 저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활동가㉕

“난민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나는 왜 이들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없는가? 활동 초기와 중기에 이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지냈어요. 지금도 고민하는 주제이고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 활동의 목표와도 같거든요. 그렇지만 ‘대상화’하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주변의 동료들 중에 2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둘씩,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라지죠.”

-활동가㉖

#### (4)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노동

㉔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모순들과 국내적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집적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했다. 국제정치를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고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정된 사회·문화·경제자본을 가진 난민은 법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학을, 더 나아가 ‘난민의 상황’과 ‘난민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을 두루 알고 있어야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난민을 둘러싼 혐오의 문화에 맞서다보니 ‘공부목록’이 더 늘었다는 소문도 들린다.

“난민들의 케이스(사례)라는 것이 사실 되게 많이 복합적이거든요. 본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위인정을 위해 난민사유의 적합성을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 언어공부도 중요해요. 소통을 해야 하니... 영어공부도, 불어도, 아랍어도... 최근에 아랍어 통역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활동가E

## 2) 자율성 및 진정성 기반 노동

사회적 노동의 한 분야로서 난민지원활동(과정)은 먼저, 노동의 타율적 요소보다 가치와 신념에 대한 자발적 동의 등에 의해 시작·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이고<sup>21)</sup> 다음으로 이런 가치와 신념을 삶의 주요한 관점으로 체화하며, 사명에 가까운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이러한 태도·윤리에는 노동이 삶을 대체하는 노동사회의 구조적 경향(노동을 위한 삶)에서부터 그간의 개별적인

21) 더불어 노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점에서.

삶의 ‘배경’들이 곳곳에 배어있을 것이다<sup>22)</sup>. 그리고 이와 함께 “지위 이하의 지위”에 놓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노동의 반복적 수행과 매순간의 ‘휘말림’은 노동에 대한 이들의 윤리와 태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과 같은 노동과정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 (1) 가치와 신념에 동의하는 노동(윤리)

활동가들은 모두 이 활동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대부분 돈은 필요하지만 활동을 시작할 당시와 지금까지도 돈만 봤다면, 아마도 이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활동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그간의 ‘수고’를 비롯해 특정한 노동윤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사회 내 보편적 보상체계로서의 임금의 위상이 (뒤)흔들리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활동가들에게 임금은 결코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3)</sup>.

“중학교 시절 우연히 난민문제를 접했고, 이것을 위해 내가 무언가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전히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활동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 일은 가치와 신념이 없으면 못해요. 활동가의 조건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이 활동에 대한 신념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에 달린 거라고 생각해요.”

-활동가㉔

22) 예컨대 활동가들 중 ‘기독교인’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임금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더 정확한 그것을 노동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수용/인정하길 거부하는 노동윤리. 이것은 어떠한 효과 혹은 후과(後果)를 생성할까?

자율성 기반의 노동은 몰입감을 만들고, 이 몰입감은 가치와 신념에 대한 동의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자율성은 진정성으로 전화된다. ‘진정성’이란 노동과 삶이 어긋나지 않는 것, 곧 자기실현과 노동의 목표·성과가 방향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활동가에게 난민지원활동은 “좋아하는 일”이자 세계 (안)에서 꼭 이뤄져야하는 일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꼭 해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조직은 이러한 노동윤리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이것을 ‘강요’라고 볼 수는 없다. 선배 및 동료들은 다만 삶 혹은 분위기로, 문화·풍토 속에서 그저 ‘보여줄 뿐’이다.

“제가 활동 초기에 한 선배는 전화를 24시간 켜놓았어요. 난민들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들이 혹 다툼이나 ‘범법’에 연루라도 되면 정말 견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그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이해가 됩니다.”

-활동가㉔

## (2) 삶으로서의 노동, 삶과 합일되는 노동

위에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활동가들에게 활동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런 측면은 모든 노동에 다소간 내재되어 있지만, 활동가들의 노동에서 더욱더 짙고 강하게 드리운다. 이것은 또한 활동가들이 노동과정에서 삶과 노동의 ‘경계문제’를 일상적으로 제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노동은 타율적이지 않고, 돈벌이만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삶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어찌면 유일한 활동으로 이해될 때), 필시 삶 자체에 버금가는/삶을 범람하는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삶의 고유한 차원’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즉 삶과 노동의 합일이 주는 자아실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삶의 소멸과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문제’에 대해 활동가들은 ㉠“삶과 노동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류와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부류로 나뉜다.

“저는 저 자신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은 경계해요. 왜냐면 그게 마치 제 활동을 삶과 분리해놓는 거 같아서요. 활동을 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제 활동을 사랑하고 이것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해요.”

-활동가㉠

“삶과 활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활동을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활동가들을 보면, 일을 손에서 못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저 사람은 정말 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도 쉬지 않네. 하는 맘도 들어요.”

-활동가㉡

“난민 분들은 자신과 가까워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파티에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가로서 쉬는 날이어서 축하할 자리에 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해서요. 많은 활동가들의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활동가㉢

### (3) 끝낼 수 없는, 스스로 끝내지 않는 노동

노동과 삶의 경계에 대한 입장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 모두가 이미 장시간의 추가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동기/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편에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난민의 지위(이하의 지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성과 진정성에 터한 노동윤리/맘가짐이다. 허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추가노동의 성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해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저희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이 1에서 10까지를 커버하는 내용의 일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건지,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노력하고 좀 더 ‘희생’하면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활동가㉔

“누가 여기까지 하라고 주는 오더도 없으니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자기를 털어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일하는 단체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민을 돕는다는 것이 끝이 없다보니까 잠을 줄여가며 일하게 되죠<sup>24)</sup>.”

“새벽에도 메신저 알람이 울려요. 저 자신을 봐도 그거 이상으로 일을 끝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이 재밌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끝내면 저 난민 분에게 좋으니까! 성취감도 있고, 또 그게 한편으로는 즐겁고. 그런데 또 힘들고...”

-활동가㉕

24) 공익법센터 어필의 유튜브채널. “한국의 공익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2019.04.10. [https://youtu.be/UJx\\_QNfKZhw](https://youtu.be/UJx_QNfKZhw) 최종검색일: 2019.06.03

“일에 대한 열심의 정도가 진심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까?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조금 더 이 부분을 리서치해서 서면을 조금 더 보충하면 어떨까? 계속 끊임없이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 진심을 그렇게 일로써 나타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에서 (어떻게 보면)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sup>25)</sup>.”

“요즘에는 동료들이 일을 더 하지 않도록 서로 저지해 주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같이 일을 오래하기 위해 고안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활동가<sup>㉔</sup>

노동의 자율성·자율적인 노동은 노동에 대한 노동자 통제가능성 정도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것은 ‘좋은 노동’을 위한 필수요소이면서 한편으로는 ‘나쁜 노동’의 구성요소가 될 위험성을 내재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은 결국 전적인 자기통제역량에 맡겨지게 되는데 사회적 노동자의 경우, 자기통제역량은 일의 긴급성과 진정성에 따라 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26)</sup>.

### 3. 활동가들의 노동위험: 소진과 일중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위의 내용들에 준거하여 활동가들의 노동과정의 특성

25) 공익법센터 어필의 유튜브채널. “한국의 공익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2019.04.10. [https://youtu.be/UJx\\_QNfKZhw](https://youtu.be/UJx_QNfKZhw) 최종검색일: 2019.06.03

26) 이은진·정인호(2012)는 소진과 일중독에 대한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서 직무의 자율성이 일중독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관련하여 강수돌 역시 자율적인 업무 환경은 오히려 일에 중독되기 쉬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수돌, 2007: 39).

과 노동위험, 그 중에서도 소진과 일중독의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진과 일중독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위 개념들에 비추어 활동가들의 상황을 분석해볼 것이다.

## 1) 소진과 일중독의 개념

### (1) 소진

소진(burn out)의 증상이 맨 처음 보고된 이들은 사회적 노동과 유사한 타인을 돌보거나 조력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활동이 요구하는 높은 감정의 부담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다. 소진의 개념은 70년대에 미국의 심리분석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1926~1999)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미하엘슐테 마르크보르트, 2016: 122). 당시에 그는 이 개념을 구호단체나 사회기관에서 명예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기능의 저하에 적용하였다(토마스 바셰크, 2013: 184-185).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소진이 (비자발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소진이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중 마티아스 부리슈는 소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Burisch, M. 2010: 7). “소진은 에너지의 보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소모와 낮은 효과 혹은 결과가 겹치는 것이다<sup>27)</sup>.” 그에 따르면 소진은 ‘에너지의 과도한 투입’, 즉 노동의 양보다 노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심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열정’과 그에 따른 처우를 포함한 ‘성과’가 지나치게 과도한 격차를 보이지만 앓는다면, 높은 열정을 유지해도 소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

<sup>27)</sup> Burisch, M(2010)는 노동조건 못지않게 노동자 개인의 내적 배경 역시 소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 있다고 말한다. 관련하여 토마스 바셰크는 소진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전형은 소외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지 않은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토마스 바셰크, 2013: 191).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노동에 대한 열정 및 신념 그리고 사랑이 충분한 결과와 성과로 담보될 수 없는 조건 하의 노동자는 소진의 증상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 (2) 일중독

일중독 개념의 계보는 크게 보아 일중독의 유형구분을 통해 일에 대한 ‘향유적 몰입’과 ‘강박적 몰입’을 구분하려는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중독개념을 처음으로 널리 알린 Oates(1971)에서 이를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한 Spence와 Robbins(1992), 그리고 일중독의 유형에 따라서 삶의 건강 여하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 Scott et al.(1997)으로 이어진다. 즉 일중독 연구는 초기의 강박과 집착 등의 병적인 상태로 일중독을 개념화하던 흐름에서, 최근의 순기능적 일중독에 대한 발견과 주장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고 다양한 지평을 축적해가고 있다. 따라서 일중독을 정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건 일중독이 노동사회의 후과(강수돌·홀거하이데, 2009)로서 삶을 노동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왕배, 2007: 98). 한국사회의 경우에 97년 이후 전면화 된 고용불안과 경쟁의 가속화, 24시간 노동체제의 확립 및 특수고용방식의 독립노동, 플랫폼노동의 증가 등의 상황은 시민들의 일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일중독은 간단히 정의해 하나의 질병으로서 강박적이고 집착적으로 노동에 몰두하며 노동의 성과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병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강수돌, 2015). 이에 따라 일 중독자에게 일은 일종의 마약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착과 강박을 놓지 못하고 일을 통한 더 높은 성과와 쾌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충분에 대한 불감). 반면, 일 바깥의 일상영역에선 항시 불안함과 허전함을 경험하게 된다(금단 증상). 일중독 척도에서 노동의 양(시간)은 매우 중요하지만, 노동시간이 길다고 모두 일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의 노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일중독은 나타날 수 있다. 즉 일중독의 판단여부는 노동의 양보다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 맺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글의 작업개념에 따르면 일중독은 노동과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역전되는 상태, 즉 노동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삶이 노동을 위한 수단이 될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일중독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강수돌(2007)은 일중독의 유형을 과도성취유형, 고통망각유형, 무능은폐유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물론 이는 ‘이념형’에 가깝다)<sup>28)</sup>. 각각은 성취와 그에 따른 성과에 도취하여 일을 통한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일에서 얻는 보람으로 덮거나 잊으려 하며, 일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많은 양의 일들을 동시에 벌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은 노동사회 내부의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일중독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윤자영, 2018)<sup>29)</sup>.

28) 관련하여 김왕배(2007)는 일중독을 노동강제유형, 과도성취유형, 과부하유형, 완벽추구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29) 대표적으로 홀거 하이데(2000)는 일중독을 자본주의적 폭력과 강제이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일종으로 정의한다. 즉 일중독은 역사적으로 초기 자본주의시기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체제의 강력한 강제적 폭력과 그에 따른 저항불가능성을 경험하면서 세대에 걸쳐 내면화 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을 강제하는 조직의 분위기와 노동자 개인의 필요가 결부될 때 더욱 가속화되는데, 일례로 다수의 실증 연구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에 비해 일중독상태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고용불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에 대한 더 많은 성과와 경쟁, 압박 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김왕배, 2007). 같은 이유로 미혼자보다 생계부양자인 기혼자의 경우 일중독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최영근·김규배, 2012: 100). 하지만 여기서의 성과란 많은 경우 돈, (더 나은) 지위, 사업수익(금) 등과 관련되지만, 반드시 그것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성과는 일의 속성과 노동과정 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양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과주의의 국면과 양상 역시 단일하지 않다. 성과주의는 성과를 요구하는 외부의 구조와 주체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해질 때 보다 전면화 된다. 강수돌·홀거하이데(2018)는 이를 ‘강자와의 동일시’ 혹은 ‘(강자)폭력의 내면화’라고 불렀다. 이들이 결코 성과주의와 일중독의 대상을 산업노동자만으로 상정하는 건 아니지만<sup>30)</sup> 그럼에도 이들의 개념은 타율적 노동자를 전제로 쓰인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과를 강요하는 구조는 많은 경우 자본주의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의 자율성 및 자율화된 노동윤리가 광범위하게 안착된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 성과주의와 일중독의 발생경로,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구조적 힘은 보다 복합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글이 다루는 사회적 노동자의 사례는 그것의 일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절에서는 위에서 다룬 소진과 일중독의 개념을 중심으로 난민 지원활동가의 소진과 일중독의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0) 강수돌(2007)은 목사와 프리랜서의 일중독 또한 강조하고 있다. 강수돌의 구분에 따르면 이들은 과도성취유형에 속한다.

## 2) 소진과 일중독의 가능성

### (1) 소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난민지원활동의 노동과정의 특성은 활동가들을 노동위험, 그 중에서도 먼저 소진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난민의 지위이하의 지위와 자율성 및 진정성 기반의 노동윤리에 따른 일에 대한 높은 당위와 사랑은 (조절되기 힘든) ‘긴급한 열정’을 구성하지만, 난민문제를 둘러싼 전 지구적인 국면들의 악화와 한국사회 내부에 공고한 반 난민세력/문화는 활동가의 열정과 에너지에 준한 성과 및 보상(성취)를 ‘더디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구조화(불가능성의 구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다수의 연구들에서 소진증세를 보인 이들은 ‘소외된 노동’이 아닌, 자율성 및 진정성에 기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난민지원활동가들의 소진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활동가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겪고 있는 ‘2차 트라우마’와 활동가들이 “3년을 못 버티고 떠난다”는 이야기는 난민지원활동 현장 내에 소진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개별 활동가의 심리적 문제라기보다 노동과정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인터뷰를 했던 활동가들의 반 이상은 이 활동의 종료시기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이 고민을 매우 장기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은 소진과 일중독의 연결성 및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활동가들의 ‘역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장기화된 소진감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을 현장에 남도록 만드는 역동이 존재하는 것이다.

### (2) 일중독

난민지원활동가들의 긴급한 열정과 에너지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31) 활동가에게 임금은 결코 노동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막는 ‘불가능성의 구조’는 소진(burn out)의 조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소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멈추지 말아야 할, 다시 열정적으로 노동을 해야 할 당위와 정당성의 조건 역시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활동가와 난민들을 둘러싼 구조는 열정과 에너지에 준한 성취와 성과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만(소진의 가능성), 그렇기에 더더욱 활동가들은 일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일중독의 가능성). 이러한 ‘구조’와 그 안에서 활동가들의 역동은 그들에게 하나의 유사-쇠우리(iron cage)가 된다.

이에 따라 많은 활동가들은 상황에 의해 “끝낼 수 없으면서” 스스로 “끝내지 않는” 노동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전자가 난민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지위문제’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전자와 연결되면서도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율성 및 진정성 기반의 ‘노동윤리’와 임금보상을 넘어선 성과 및 일 자체에 대한 강한 집착·강박과 연관된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는 서로를 근거지우면서 활동가의 노동 강도를 가속화시킨다.

사회적 노동 그 중에서도 고통의 곁에 선 인권운동의 일중독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곧 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해내야 하는 노동, ② 힘들지만 의미 있고 보람된 노동, ③ 즐거우면서도 자율적이고 의미도 있는 노동” 사이에서 활동가는 노동을 멈추거나 적당히 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기 힘들다. 만약 그 이유를 찾더라도, 먼저는 당위와 죄책감이 그를 가로막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일을 통한 성취와 즐거움이 그를 막아설 것이다. 이 글의 구술 자료들에 담긴 활동가들의 정서적 경향은 대부분 이 즈음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노동이 노동사회 내부에 놓여있는 독특한 맥락 혹은 위상과 관련된다. 즉 사회적 노동은 (많은 부분) 활동가에게 돈버는 ‘노동’으로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사회의 구조적 경향이 통치성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국면에서 사회적 노동은 노동사회

와는 다른 행위양식, 즉 삶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탈구축의 고민이 없을 때, 오히려 노동사회의 경향을 반복하거나 그것을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곧 좋고 즐거운 일을 하는데,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데 정해진 시간이나 끝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의 반복에서 활동가들의 삶은 노동으로 환원되거나, 노동을 중심에 둔, 노동을 위한 여정으로 변모·격화되기 쉽다. 즉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게 되어 버려서 어느새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일을 중심으로 (다른 사물과 세계를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항시 일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활동가의 소진과 일중독은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이 둘은 노동과정의 특성과 노동사회의 경향이 조우하며 자아내는 상황에서 “따로 또 같이” 삶이 노동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삶과 노동의 우선순위가 역전될 때 발생하고 강화된다.

### III. 결론

이외에도 활동가들이 노동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과 위험에는 젠더문제(젊고 어린 여성으로서 겪는 일상적인 차별) 및 직업에 대한 인정문제(활동가? 아~ 그거 봉사활동!)를 포함해 법무부, 공무원들의 난민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무례한 태도, 그리고 혐오세력들의 폭언<sup>32)</sup>등이 있었다. 더불어 몇몇의 활동가들은 활동가 사회(내부)에서의 혐오발언, 즉 반난민 진영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와 관점을 듣는 것 역시 소진(감)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했

---

32) 관련하여 난민들뿐만이 아닌 이미 다수의 활동가들이 반다문화/난민세력에 의해 직접적인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어떤 활동가가 지속적으로 받아온 이메일에 쓰여있던 내용이다. “OOO씨, 난 당신의 얼굴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난 당신을 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다. 이것은 내가 ‘난민지원활동가’라는 조작적 범주를 설정하면서 언급한 ‘긴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본국과 비호주체국에서 “이중으로 잇힌” 타자로서의 난민과 그들의 곁에 선 난민지원활동가의 특정한 노동과정의 ‘형성’은 1차적으로 전 지구적 체제 단위/개별 국민국가 단위/개별 국민국가 내 시민사회 단위 등의 복합적 역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난민의 지위상태와 그들의 곁에 선 활동가들의 노동건강·위험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진태원(2018: 39)이 발리바르를 인용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거시적 차원의 전 지구적 체제의 전환은 문명이행에 준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개별 국민국가 단위의 비호정책과 문화는 ‘일정정도’의 변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로 발리바르(Balibar)는 ‘국민적인 것’의 탈구축으로 이산적 시민권과 국경의 민주화<sup>33)</sup>를 대안 퍼스펙티브로 제안한다.

관련하여 활동가들은 현재 난민의 지위상태와 그에 따른 삶의 비참·비체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국가의 출현’과 ‘반난민세력의 공모’를 지적한다. 즉 국가가 난민의 단속, 구금, 입국금지, 지위불인정, 강제송환 등의 안보·치안문제에 관해서는 ‘과잉출현’을 하는 반면 난민의 복지, 처우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소출현’을 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적인 것’의 우선에 기반 한 ‘반 난민진영’의 움직임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난민지원/비호는 활동가들의

33) 발리바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의 국경의 개방뿐만이 아니라 (국경의 일방적 철폐는 많은 경우 경제 세력들 사이의 야만적 경쟁의 형태로 재등장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이주민을 포함한) 자신이 국경의 기능/작동을 다자/쌍무적으로 협상하며 서로-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단순 그 자체로 ‘영토적’이지도 않고 또한 순수하게 ‘민족/국민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대표기관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내가 시민성/시민다움과 밀접히 결합되는 인권의 세계정치(cosmopolitics)라고 부른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Balibar, E. 2004: 115-117).”

‘독박노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활동가들을 장기적 노동위험상태에 노출시키게 한다. 우리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난민(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곁에선 이들의 건강/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통의 곁에선 이(들)의 곁이 되자/곁에 서자”는 엄기호의 제안은 시작을 위한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엄기호, 2018)

글을 마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난민지원활동가’들의 노동은 누구의 필요일까? 난민인권의 필요인가? 단체의 필요인가? 난 무엇보다 먼저 활동가들의 “삶을 위한” 필요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동가들의 좋은 삶과 난민의 좋은 삶은 절대 ‘길항관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혹은 연대체 단위의 활동가 보호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활동가들의 노동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없다. 정책적으로 활동가들을 보호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제안이 시급하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권리체계 일반을 활동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난민 관련 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난민법 내부에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및 인력충원의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다. 곧 노동위험에 대한 보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정책적 제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노동 현장의 ‘노동안전’ 혹은 ‘노동위험’에 대한 논의가 더욱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9.05.02, 논문심사일: 2019.05.21, 게재확정일: 2019.06.13)

## 참고문헌

- 강수돌. 2007a. 『일중독 벗어나기』. 서울: 메이데이.
- \_\_\_\_\_. 2007b. “노동사회를 넘기 위한 노동의 실천.” 『문화과학』 52: 247-275.
- \_\_\_\_\_. 2015. 『여유롭게 살 권리』. 서울: 다시봄.
- 강수돌·홀거 하이데. 2000.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 고양: 박종철출판사.
- \_\_\_\_\_. 2009.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서울: 이후.
- \_\_\_\_\_. 2018. 『중독의 시대』. 고양: 개마고원.
-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2019.04.10. “한국의 공익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https://youtu.be/UJx\\_QNfKZhw](https://youtu.be/UJx_QNfKZhw) 최종검색일: 2019.06.03.
- 김왕배. 2007. “노동중독.” 『한국사회학』 41(2): 90-117.
- 김찬호. 2009. 『생애의 발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난민인권센터. 2017.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자료집』.
- 박상희·박지현. 2016, “난민활동가의 2차 트라우마 맥락과 활동가 보호.” 『난민지원네트워크 3차 활동가 교육자료집』.
- 유상미. 2016. “난민활동가의 2차 트라우마 원인, 증상, 대응방법.” 『난민지원네트워크 3차 활동가 교육자료집』.
- 엄기호. 2018.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서울: 나무연필.
- 엄기호·김영옥·김일란. 2018. “좌담: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인권운동 창간호』. 서울: 클.
- 윤자영. 2018. “일중독 측정과 실태.” 『산업노동연구』 24(1). 229-260.
- 이영룡·명수민. 2014. “한국 청년세대의 사회적 노동경험: 2010년대 청년들의 자기 서사와 노동서사를 중심으로.” 『2014 청년허브 연구보고서』.
- 이은진·정인호. 2012. “일중독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7: 27-53.
- 장훈교. 2015. “삶을 위한 노동(연재).” 울산저널. [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76621](http://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76621) 최종검색일 2019.06.03.
- 정준호. 2014. “한국 NGO에 ‘노동’은 없다?” 시사인.

- 정정훈. 2014. 『인권과 인권(들)』. 서울: 그린비.
- 조한혜정. 2011. “후기 근대의 청년, 비물질노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청소년.” 『창의서밋 자료집』.
- 진태원. 2018. “칼 슈미트와 자크 데리다: 주권의 탈구축.” 『철학과 현상학 연구』 78: 3-42.
- 최영근·김규배. 2012. “일중독 및 직무열의의 선행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POSRI 경영경제연구』 12(2): 82-110.
- 최태섭. 2017. “프리랜서는 행복할까.” 『자비없네 잡이없어』 희망제작소 편. <http://www.makehope.org/?p=41942> 최종검색일 2019.06.03.
- 더플랜B. 2016. “젊은 활동가A, 비영리에게 이별편지를 쓰다.”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54371> 최종검색일 2019.06.03.
- e-나라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8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856) 최종검색일 2019.06.03.
- 미하엘술테 마르크보르트. 2016. 『번아웃키즈』. 정지현 옮김. 파주: 문학동네.
- 요하힘 바우어. 2015.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전진만 옮김. 서울: 책세상.
- 이반 일리치. 2014.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허택 옮김. 서울: 느린 걸음.
- 조르조 아감벤. 2008. 『호모사케르』. 박진우 옮김. 서울: 새물결.
- 케빈 그레이. 2004.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 연구』 47(2): 97-128.
- 토마스바셰크. 2013.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이재영 옮김. 서울: 열림원.
- 한나 아렌트. 2011.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박미애 옮김. 서울: 한길사.
- Balibar, Etienne. 2004. “Outline of a Topography of Cruelty: Citizenship and Civility in Era of Global Violence”. in *We, the People of Europe?: Reflection on Transnational Citizenship*, trans. James Swens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urisch, Matthias, 2010, *Das burnout-syndrom: Theorie der inneren Erschöpfung*.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 Frigga Haug. 2009. “The Four-in-One Perspective: A Manifesto for a

- More Just Life.” *Socialism and Democracy* 23(1): 119-123.
- Gorz, Andre. 1985. *Paths to paradise on the liberation from work*, trans. Malcolm Imrie. London and Sydney: Pluto Press.
- \_\_\_\_\_. 1994. *Capitalism, Socialism, Ecology*, trans. Chris Turner. New York: verso.
- \_\_\_\_\_. 2011.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이현웅 옮김. 서울: 생각의나무.
- Oates, Wallace E. 1971. *Confessions of a workaholic: The facts about work addiction*. Cleveland and New York: World Publishing Company.
- Scottl, Kimberly S and Moore, Keirsten S and Miceli, Marcia P. 1997.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and consequences of workaholism.” *Human Relations* 50(3): 287-314.
- Serhat Karakayali and J Olaf Kleist. 2016. “Volunteers and asylum seekers.” *FMR* 51.
- Spence, J.T. and Robbins, A.S. 1992. “Workaholism: Definition, measure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1), 160-178.
- Jacques Rancière. 2004.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in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297-310.
- Weeks, Kathi. 2011. *The problem with work: Feminism, Marxism, antiwork politics, and postwork imaginaries*.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Abstract>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as social labor  
: A Study on the Labor Health Problems of the Refugee aid Activists

Park Kyung Joo\*

Work is a dual project with amazing possibilities and dangers. In other words, Work is a source of joy, pride, recognition and social solidarity that individuals need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is also a threat to their lives and health through problems of labor safety, ranging from accidents to workaholics. This “duality” inherent in labor can also apply to refugee aid activists, who are Social Activist-Worker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process of social labor, considered relatively good labor, and the possibility of the labor risk that activists, social workers, can face. Social workers are those who reproduce society. That is why their crisis and unsustainability are likely to lead to the crisis and unsustainability of the lives of citizens and their society. And the crisis of this class is accompanied by the treatment problem of labor condition at the center, but it has a personality that can never be returned to it. Therefore, by identifying, preventing and taking measures against labor health problems that Social Activist-Workers may face, building the sustainability of civil society movements based on their “good work” would be a very important task for a “good society”.

Key words: Refugee aid activities, social labor, Social Activist-Workers, burnout, workaholic

---

\* SungKongHoe University.